

# Light survey : 기업조사

201810786 유세빈

## 1.카카오

카카오는 2006년에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발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로 다음과 합병하게 되면서 더 크게 발전하게 된다. 카카오톡이 메인 사업이지만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카카오 지하철과 같은 교통정보 분야, 카카오프렌즈라는 캐릭터 분야,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은행과 같은 금융 분야 역시 모두 설립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트렌드와 대표하는 인공지능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카카오의 기술

카카오의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여러분야의 기술들을 다루고 연구한 뒤 자사의 서비스에 이용한다.

첫번째 기술은 시각 관련 분야이다. 유사 이미지 검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입력하면 그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술이 있다. 이를 통해 쇼핑을 할 때 입력된 사진을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제품들을 추천해준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상품 검출 서비스도 있는데 한 이미지에서 여러가지의 제품들을 추출한 뒤 이의 판매처를 알려준다. 이 역시도 쇼핑 분야와 검색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두번째 기술은 음성 관련 분야이다. 카카오의 AI 중 가장 유명한 카카오 미니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헤이 카카오" 라고 부르게 되면 카카오 미니가 반응하는 것처럼 특정 핵심어에 반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성 인식 역시 카카오 미니, 카카오 맵과 같이 사용자가 무언가를 손으로 직접 누르거나 작동시키지 않아도 목소리를 통해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받아낸다.

세번째 기술은 자연어 처리 분야이다. 말 그대로 언어를 처리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말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해준다. Mrc 기술은 카카오의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이를 여러가지의 검색어로 변환한 뒤 검색을 하여 그에 대한 답을 걸러서 알려준다. 카카오 미니 속 인공지능 비서인 헤이카카오가 이 기술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심슨이라는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고객센터에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자연어를 처리하여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람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챗봇을 통해 고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Aurora Innovation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2010년대 후반에 설립된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이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겉으로만 신생 회사이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경영인 및 개발자들은 절대 신생이 아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의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엡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총괄이었던 스티어링 앤더슨, 우버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센터 자율 및 인식 기술팀의 두르 배그넬이 모여 만든 기업이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투자로 발전하며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 역시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큰 두각을 보이고 있다.

### 오로라의 기술

오로라는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6단계에서 4단계를 목표로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최종 목표는 운전자가 아예 불필요한 5단계를 목표로 둔다. 4단계는 고등 자율주행으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주행 제어와 책임이 모두 시스템에게 있으며 운전자는 존재하나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오로라는 오로라 클라우드와 오로라 드라이브로 플랫폼을 나눈다. 오로라 드라이버는 어떤 차량이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며 오로라 클라우드는 오로라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과 오로라와 이와 관련된 개발자들과 연결,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이 두개의 플랫폼으로 오로라의 기술들을 확장시키고 있다. 오로라는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속에 실제 사람이 아닌 운전자를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차량은 현대차와 폭스바겐과 같은 차량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있다.

## 3. 넥슨

넥슨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국내 게임회사의 지분율 1위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으며 최근에는 카트 라이더와 같이 자회사의 게임을 모바일로도 발표하면서 또다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 넥슨의 기술

넥슨은 넥슨 인텔리전스랩스라는 AI분야를 다루는 분석 본부를 설립하였다. AI를 통해 많은 기술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게임에서 사용자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 게임을 긴박감을 높이거나 게임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와 매칭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 (핵)을 잡아내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탐지하고 잡아낸다. 또한 채팅창에서 남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AI가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잡아내어 좀 더 평화로운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4.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는 보험과 IT를 결합한 온라인 주택보험업체이다. 주택 보험이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보험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세입자 보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레모네이드는 큰 성장을 이루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 레모네이드의 기술

레모네이드는 챗봇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챗봇의 이름은 마야로 신규 가입자들의 정보를 통해 보험의 내용을 구상해낸다. 마야는 행동 심리학을 적극 사용했고 AI를 통한 많은 데이터의 수집으로 개인화 된 질문에 대한 응답의 보기를 빠르게 제공한다. 또한 대화의 흐름도 챗봇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레모네이드는 이러한 마야를 완성시키기 위해 많은 데이터들과 반복된 모델링을 시킨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보험에 빠른 시간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역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

## 5.디즈니

디즈니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서 영화 제작사로만 알려져 있으며 많은 저작권과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지능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 리서치라는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AI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 디즈니의 기술

디즈니 리서치는 대표적으로 로봇,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몰입형 기술을 다룬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기술을 통해 입력 음성과 동기화 되는 자연스러운 음성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음성과 입모양을 통해 애니메이션 속 인물이 그것을 똑같이 출력해낸다. 입모양을 딥러닝 시켜 이를 통해 음성만 들어도 어떤 입모양을 출력해내는 지에 대해서 알고 이를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영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국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소화한다. 또한 이에 맞는 표정 역시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는다.

또한 디즈니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 신경망을 통해 미디어의 스토리를 캐치해내는 기술을 발표하였다. 대중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추천이 많은 글은 어떤 것인지 찾아내서 대중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한다. 마르쿠스 그로스 디즈니 연구소 부소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낼 시대가 온다면 인공지능이 후에 자신의 창작물을 평가하고 좋은 각본까지 골라내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디즈니가 열어갈 미디어와 AI의 융합을 예고하였다.